

당인주거지의 세시기- 중국 용춤 (歲時記)



용춤도 (“당인주거지 두루마리 그림”의 일부), 카와하라 케이가 작품, 에도시대 후기(19세기), (1권 지본착색 22.8cm×36.0cm)
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

당인주거지에서는 매년 정월 15일이 되면 복이 오기를 기원하는 제례가 열렸습니다. 밤에는 수많은 등불이 켜지고, 아름답게 꾸민 기생들이 참배하는 등 제례는 매우 화려하게 치러졌으며, 용춤은 제례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. 용춤 공연은 당인주거지 안에 있는 토신당(土神堂) 앞에서 열렸습니다. 이 용춤은 나가사키 사람들에게 전해져, 지금까지도 군치(나가사키의 전통 축제)를 대표하는 공연 중 하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.